

‘AI 버블론’ 속 외국인 투매…코스피 4000대 턱걸이

4004.42마감…삼성전자·하이닉스 급락 등 전체 80% 하락

코스피·코스닥, 작년 ‘블랙먼데이’ 이후 첫 사이드카 발동

하반기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코스피가 ‘AI 기술주 버블론’이란 압초에 부딪치며 4000대로 주저앉았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7.32p (2.85%) 하락한 4004.42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27p (1.61%) 내린 지수는 전장보다 66.27p (1.61%) 내린 4055.47로 출발해 4000선을 내준 뒤 낙폭을 기워 한때 3867.81까지 밀려났으나 장중 낙폭을 축소, 종가 기준 40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한 지난 8월 1일 (126.03p)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3294조4119억원으로 전날 (3392조1050억원) 대비 97조6930억원 증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외국인이 2조 5187억원을 순매도하며 투매에 나서면서 낙폭이 커졌다.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지난 2021년 8월 13일 (2조6990억원) 이후 최대치다.



기관은 79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5660억원어치 매수 우

위를 보이며 코스피 방어에 나섰다. 이날 개인의 순매수액 역시 2021년 8월 13일 (2조8040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단기간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미국 AI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가 “향후 12~24개월 사이 주식 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블랙웰’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져 기술주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이에 삼성전자(-4.10%)가 장중 한때

10만원선을 내렸으나 낙폭을 줄여 ‘10만 전자’를 겨우 사수했고, SK하이닉스(-1.19%)는 57만대로 내려왔다.

LG에너지솔루션(-1.90%), 현대차(-2.72%), 기아(-2.97%), 두산에너지(-6.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5.94%) 등을 포함해 928개 종목 중 80%에 해당하는 734개가 내렸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4.68p (2.66%) 하락한 901.8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29p (0.79%) 떨어진 919.28로 출발한 뒤 한때 871.79까지 내렸으나 내림폭을 줄여 종가 기준 900선은 회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974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5647억원, 419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차례로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함께 발동된 건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당시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가 급락한 바 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전날 (35.78)보다 13.22% 급등한 40.51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9조1130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10조940억원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5원 오른 1449.4원을 기록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정규직 늘었지만 임금 격차는 ‘여전’

최근 5년간 3만6000명 ↑
월 293만원 평균 밑돌아
비정규직은 7000명 감소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는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줄었지만, 임금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2025 광주시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광주지역 임금노동자는

총 59만5704명으로 이 가운데 39.2% (23만3590명)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중 임시·일용직이 15만 6369명, 계약직·시간제 근로자가 7만 7221명이었다.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39.9%로 전년 (39.1%) 대비 0.8%p 상승했으며, 광주 역시 전년 (38.4%)보다 0.8%p 올랐다. 6대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 (41.1%), 인천 (41.0%), 울산 (40.0%), 대구 (39.4%)가 광주보다 높았고, 대전 (38.5%)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노동자 (31만7760명)

중 31.5% (11만183명), 여성 노동자 (27만7944명) 중 48.0%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43.1%, 30대 24.8%, 40대 25.6%, 50대 35.5%, 60세 이상 73.4%로,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특히 높았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정규직은 약 3만 6000명 증가, 비정규직은 약 72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9만83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업 (9만7262명), 건설업

(5만6435명), 교육서비스업 (5만32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69.1%)이 가장 높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3.3%), 건설업 (49.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6.8%)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만 24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만 4869명 (15.2%)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6.90시간 (정규직 41.96시간, 비정규직 29.17시간)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임금은 292만6800원으로, 정규직 359만4700원, 비정규직 189만1300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주당 37.84시간, 월 316만1800원)과 비교해 노동시간과 임금은 다소 적은 수준이다.

또한 광주지역 상시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86개로,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개 (25.6%), 제조업 17개 (19.8%),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2개 (14.0%), 건설업 11개 (12.8%)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노동자는 7만9915명이며, 그중 비정규직이 47.1% (3만7649명)를 차지했다.

정찬호 광주노동권익센터장은 “지역 고용 상황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7년째 정부 자료를 재분석해 지역 맞춤형 노동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광주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오비맥주, 전국 소상공인 응원
‘우리동네 히어로’ 감동 전달

오비맥주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우리동네 히어로’ 캠페인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오비맥주는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조명하고 응원하기 위한 ‘우리동네 히어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오비맥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소중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지행하는 기동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영상은 전국 골목상권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지역 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특별한 연출 없이 울림 있게 전달한다. 또, 지역 상권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서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오비맥주의 다짐을 담았다.

앞서 지난 8월 오비맥주는 전국 각지의 골목상권을 누비는 수백명의 영업사원들로부터 ‘내가 만난 골목 상권 사장님들’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접수했다. 오비맥주는 모아진 330여건의 사연을 토대로 100여명의 ‘우리동네 히어로’를 선정, 9월 한 달 모든 ‘히어로’ 업장에 임직원이 직접 방문해 트로피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분들을 ‘히어로’로 조명하고, 경기 침체 속 이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며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현이 기자 aura@

‘2025 중소기업 융합대전’

전남TP, 중기부장관 표창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는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막식에서 ‘지역혁신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산·학·연·관 협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전남TP의 지속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익현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남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기업 간 협력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

3959억 규모 투자펀드 선정…전남 AI·데이터산업 본격 시동

전남도는 3959억원 규모의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번째 프로젝트로 선정돼 이달 중 주주협약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이후 전남에서 추진되는 첫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도내 AI·데이터 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전망이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장성 남면 첨단 3지구 부지에 26만㎡급 규모로 조성되며, 2023년 정부 정책 발표 직후 MOU를 체결한 이후 민간·정책펀드 검증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전남도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을 비롯해 파인디씨에프에프(주), 파인엔파트너스자산운용(주), 현대차증권(주), ㈜엔디엠피자산운용 등과 총 9차례 컨설팅을 거쳐 사업성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 재정과 민간 자원을 결합해 지역 전략산업을 촉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활용해 추진된다.

여수·묘도 LNG 허브터미널에 이어 전

남에서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로, 정부가 지정한 전국 7개 프로젝트 중 하나다.

또한 지난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주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지원 사업에도 포함돼 412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두 개 정책펀드의 동시 참여로 사업 추진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데이터센터는 지역과의 상생도 함께 모색한다.

1층에 약 1322㎡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지역 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와 AI·클라우드 분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별도로 1157㎡ 규모의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마련해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전남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전남 데이터산업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상징적 성과가 될 것”이라며 “AI와 데이터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성 남면 첨단3지구 부지에 조성되는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조감도.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왼쪽 두번째)이 ‘우리동네 히어로’로 선정된 업장에서 업주, 임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인지솔루션, 네덜란드 ‘플로팅팜’과 기술 협력 MOU

AI 정밀농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GICON 지원기업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지원기업 ㈜인지솔루션이 네덜란드의 플로팅팜 홀딩(Floating Farm Holding B.V.)과 기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플로팅팜 홀딩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지속 가능한 도시형 축산 및 농업을 실현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 스마트팜 운영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과 스마트팜 솔루션을 실증하고 있다.

인지솔루션은 GICON이 추진 중인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IP(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 컨설팅 지

원을 통해 AI 기상 예측 연계 뿌리작물 지능형 생육 관리 플랫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GICON이 운영하는 ‘AI 융합 창업기업 해외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계기로 추진됐다.

인지솔루션은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플로팅팜 홀딩과 협력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양측은 구체적인 기술 협력으로 발전시켰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AI 기반의 자율형 스마트팜 솔루션 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공동연구 △국제 기술 교류 및 사업화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우중 ㈜인지솔루션 대표는 “세계적인 지속 가능 농업 기업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사 전문 분야인 AI와 IoT, 드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로봏 솔루션으로 한국형 AI 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능형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기업과 글로벌 기술 교류를 추진하는 성과”라며 “광주의 핵심역량인 AI를 기반으로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